

6  
월  
동  
향

1	제31차 집행부회의 개최
3	여직원 휴게실 개관
7	제32차 집행부회의 개최
14	총장실 방문 - 정년연장제도 실시 촉구
14	제33차 집행부회의 개최
15~17	'차 한 잔의 여유' 행사 실시
18~19	2010년 하계 집행부 워크숍 개최 - 1차년도 사업평가 및 2차년도 사업계획
21	학원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간담회
24	제77회 직원인사위원회 참석 - 인사위원 구성 변경 - 상반기 사립대학교 퇴직직원 장관표창추천 심의
29	제34차 집행부회의 개최

알  
림  
터

- '잘 가르치는 대학'... 재정지원 늘려야**  
학부교육에 높은 관심 집중...사업 예산 확대 절실  
대학신문, 2010. 6. 25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2475>
- [한동대]김영길 총장의 창의적 인재 교육론** [대학신문, 2010. 6. 25]  
교수 학생상담 노력 결실... 사업 선진으로 분위기 바뀌어  
'無전공입학' 인성+전공역량+국제화로 'I'자형 인재양성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2472>
- [건양대]김희수 총장의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학신문, 2010. 6. 25]  
취업은 목적 아닌 교육의 결과  
취업매직센터 설립... 다양한 취업교육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2478>
- "사분위 운영 전면 공개해야 마땅"** [대학신문, 2010. 6. 25]  
김상희·안민석 의원 주최 토론회서 "비공개 독단운영" 비판 붓물  
상시대, "29일 청문회 모두에게 오픈해 투명성·합리성 확보해야"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2379>
- 사이트 소개**  
다음카페 : 대학교직원 모임 (<http://cafe.daum.net/krac>)  
2004년 1월 개설, 회원수 36,420명  
주요 메뉴 : 교직원, 사립대학, 대학행정, 교직원연봉, 대학행정관리자  
협의회, 교직원고충, 교직원채용 등

생각해봅시다

칼레의 六人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기인 1347년. 프랑스의 해안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한다. 1년 가까이 칼레시는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원병을 기대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칼레의 6인". 로맹이 형상화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다. 속에서 결국 항복을 하고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는 항복 사절단을 파견한다. 에드워드 3세는 애초 칼레의 모든 시민들을 죽일 계획이었으나, 전통적 가치가 살아 있는 칼레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파괴와 살육이 아닌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

"칼레시민들의 생명은 보장하겠다. 그러나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만 한다. 이 도시에서 가장 신앙이 높은 시민 6명을 뽑아, 밧줄을 목에 두르고 영국군 진영으로 와서 도시의 열쇠를 건넨 뒤, 교수형을 받아야 한다."

칼레 시민들은 위기의 한 순간을 넘겼지만 칼레를 위해 목숨을 바칠 여섯 명의 희생자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 "내가 그 6명 중 하나가 되겠소."라고 말했다. 칼레 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피에르였다. 그러자 뒤이어 칼레시장법률가 등 귀족 계급에 속한 5명이 차례로 자원하였다. 이들은 칼레의 핵심인물이며 부유한 삶을 누리던 귀족들이었다.

다음 날 6인의 시민 대표는 시장통에서 에드워드 3세의 진지를 향해 출발했다.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통곡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눈물로 뿌연게 흐려진 눈에, 사라져가는 6인의 모습은 영원히 잊지 못할 이미지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영국 왕은 그들의 처형을 명했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영국 왕비가 왕에게 장자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 그들을 사면해달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왕은 6인의 시민을 살려줬다. 기적 같은 반전(反轉)이었다. 동시대 사람인 프르와사르(1337~1404)는 사건의 전 과정을 연대기에 기록했다. 6인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 대학은 현재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총장은 물론이거니와 구성원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칼레의 6인'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조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역할을 그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일까. 위기가 닥쳐오기도 전에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자신에게 닥칠 손익 계산을 우선시하며, 시급한 사안에 대해 외면하려고 하는 지금이 오히려 우리 대학이 맞고 있는 '진정한 위기'가 아닐까.

이제는 스스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발딛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구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칼레시의 정의롭고 역할을 다한 시민들처럼 말이다.

대구대학교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Culture 4U 이벤트 당첨자 발표

“7월 월간 및 첫째 주 이벤트 당첨자”

☆ 월간 : 김상관(교육혁신팀)  
☆ 주간 : 정광국(정보화개발팀)  
이은수(정보통신운영팀)  
\*추첨자 : 김민정, 박윤미, 최정환

변화의 시작! 도전의 중심! Energy 4U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Happy Birthday | 이달의 생일자 |

{ 2010. 7. 1 ~ 7. 31 }

이름	소속	생일	이름	소속	생일
이경재	점 자 도 서 관	7.1(☉5.20)	최은희	인 문 대 학	7.20(☉6.09)
이정엽	정보 화 개 발 팀	7.01	이영민	시 설 팀	7.20
김상수	시 설 팀	7.2(☉5.21)	김용식	국 제 교 류 팀	7.20
김태현	예 산 제 정 팀	7.5(☉5.24)	강선구	국 제 교 류 팀	7.23(☉6.12)
이현주	특수교육대학원	7.5(☉5.24)	최원태	학술전자정보팀	7.29(☉6.18)
황정숙	학술전자정보팀	7.15(☉6.04)	이승희	교 무 팀	7.31